

지역 매 아 리

부안농협 임원 · 여성분과위원  
선관위원회 특별교육 실시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은 협동조합 원칙과 조합원의 자세에 대한 교육이 지난 8일 중앙본부에서 임원·대의원 및 여성분과, 선관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부안농협은 최근 국제적인 각종 농업협상에 따른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및 장기적인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농산물 수요 감소 등에 따라 농가가 경영하기가 어려워져 그 여파로 농업사업도 어려워져 농업과 농협을 둘러싼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농협과 조합원 모두가 변화하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교육으로 이뤄졌다.

특히 협동조합 원칙 중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가 가장 중요하며 조합원의 참여 없이는 농협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부안 농협이 성공하려면 6,400여 명의 조합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농협 전이용 등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내 조합원의 함양으로 잘사는 부안 농협으로 거듭나려는 각오를 비관하며 교육을 마쳤다.

부안 농협 김원철 조합장은 "관내에서 생산 되는 농산물이 높은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군보건의소, 초등생 대상  
장애발생예방 교육 가져

부안군보건의소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발생을 예방하려고 지난 6월 주산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1월까지 관내 초등 6개 교, 253명을 대상으로 장애발생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발생예방 교육은 국립재활원 소속 장애인 강사가 관내 초등학교를 방문해 진행되며 사고 사례 및 예방법 등을 교육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아이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교육장에서 체험을 통해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경험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휠체어 및 안내, 지팡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한 장애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예방 실천의지 함양 및 장애에 이해에 큰 도움을 주었다.

교육을 주관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안전 교육 뿐 아니라 장애, 비장애 간 편견 해소와 존중하는 방법을 가르쳐줘 보람있는 시간이었다"며 "내년에는 교육이 더욱 확대되어 부안군의 모든 아이들이 장애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 유진섭 시장, 예산 확보 '총력'

## 과기부 방문 '방사선 백신 전용 특수시설 확충' 등 7개 사업 반영 요청

유진섭 시장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득에 나섰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을 위한 기재부 예산 심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유 시장은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 지역발전을 앞당길 핵심 사업들에 대한 국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유 시장의 중앙부처 방문은 지난날 13일과 23일에 이은 세 번째다. 유 시장은 이날 과기부 관계 사업 부서장과 담당자를 만나 사업의 필요성과 진행상황, 기대효과 등을 직접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방사선 백신 전용 특수시설 확충사업 ▲다부처(2개 부처 6개 기관) 연구개발(R&D) 공동기획사업 ▲한국방사선진흥원 설립 ▲첨단방사선연구소 독립 ▲농축산물 유통미생물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영장류 백신효능평가센터 구축 ▲첨단방사선가속기 구축 등에 대한 사업비 반영을 거듭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유 시장은 "정읍은 오래전부터 첨단과학기술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워야 한다는 전략으로 신청 동 일원에 국책연구기관을 유치했고, 이와 연계한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1단계),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을 통해 지역발전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다"며 "앞서 언급한 사업들은 그간 성과들을 토대로 관련 사업들의 연계성과 완성도를 높여 지속가능한 첨단 과학산업 발전 기반을 다지기 위한 사업들이라고 말했다.

이러 정부안이 확정되기까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총력을 쏟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북, 지역 정치권과도 공조체계를 구축해 정부안 단계에서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정부예산안은 이달 중 재정정책자문회의, 국무회의의 결을 거쳐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 폭염 장기화에 따른 관정개발 · 농업용수 확보 노력

연일 지속되고 있는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정읍시가 가뭄대책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3~4월에는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이 확보되면서 영농활동이 순조로웠으나 7월 이후 폭염이 이어지고, 강수량도 평년의 40%에 그쳐 가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가뭄대응 단계를 '주의단계'로 상향하고 농업용수 확보와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올해 가뭄 대비 예산으로 7억

6,000만원을 확보해 지난 3월부터 중형관정 40공과 간이 양수장 2개소를 설치했다.

또 최근 이어지고 있는 폭염과 관련, 읍면동에서 보관 중인 양수 장비를 대여하고 있고 노후된 대형관정에 대한 긴급 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부족한 농업용수 확보 일환으로 하상 굴착 장비 임대와 농업 용수 차량 유류대, 중소형 관정 설치비 지원 등에 필요한 예비비 확보에도 총력을 쏟고 있다.

시는 지난해에도 모두 33억원을 확보

보해 저수지 17개소를 준설하고 양수장비 구입과 하상 굴착, 2개소의 간이 양수장 설치, 431공의 중·소형 관정을 개발하는 등 매년 가뭄에 대비한 농업용수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많은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며 농업인들이 용수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비 확보와 집행 등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군, 미취업자 대상 지역 특화산업 현장견학

부안군은 최근 지역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뽕 오디를 활용한 마을기업과 부안누에타운을 방문하는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견학은 산업체 취업 및 신규창업가 양성을 목표로 부안군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전주 기전대학 산학협력단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하는 '부안 참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현장견학은 뽕 오디 가공체험과 누에, 곤충 등 6차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연계 등 다방면의 진로탐색과 지역 산업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수강생 김기수씨는 "지역민이 지역 특화산업에 대한 정보 습득하고 취업을 위한 준비와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안군은 최근 지역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뽕 오디를 활용한 마을기업과 부안누에타운을 방문하는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은 "우리군 미취업자들이 현장견학을 통해 얻은 지식과 전문교육을 바탕으로 미취업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유기상 고창군수가 9일 고창읍 고인돌유적지에서 루게릭병 환우를 돕기 위한 자신 캠페인인 '이시버킷 챌린지'에 동참했다.

## 루게릭병 요양병원 건립 기원

### 유기상 고창군수, 아이스버킷 챌린지 동참

유기상 고창군수가 9일 고창읍 고인돌유적지에서 루게릭병 환우를 돕기 위한 자신 캠페인인 '이시버킷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시버킷 챌린지'는 루게릭병(근위축성 측삭경화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환기와 기부활성화 유도를 위해 미국에서 시작된 사회운동이다.

참가자가 얼음물을 뒤집어 쓴 뒤 3명의 동참자를 지목하고 성금을 기부하는 '이시버킷 챌린지'에 유기상 군수는 전남 신안군 박우량 군수의 지목을 받아 얼음물을 뒤집어 쓰며 루게릭병의 고통을 잠시나마 나누고 환우들에게 위로와 격려

의 메시지를 전했다.

유기상 군수는 "루게릭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우들에게 힘이 되고 하루 빨리 우리나라 최초의 루게릭 요양병원이 건립되기를 기원하는 고창군민의 마음을 모아 뜻깊은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며 "더 많은 분들이 루게릭병을 비롯해 희귀질환 환우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눔과 기부의 뜻이 모여져 따뜻한 선행의 바람이 나뉠효과가 되어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 군수는 다음 동참자로 정현을 익산시장, 김광중 재경고창군민회장, 임성규 고창임성규네고구마대마 나누고 환우들에게 위로와 격려

/고창=김영식 기자

## 고창군, 성송면 관정리 위험도로 개선 완료

### 도로폭 확장 · 가드레일 표지판 안전시설 확충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성송면 관정리 일원 농어촌도로 위험구간에 대한 선형개량공사를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공사가 시행된 성송면 관정리 송암마을 입구 농어촌도로(과치선) 110m 구간은 협소한 도로폭과 급커브로 인해 평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지점이다.

이에 군은 군비 1억34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폭을 확장하고 가드레일 및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확충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 감소와 더

불어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

군은 이밖에도 고창읍 화산리, 해리면 라성리 지역 농어촌도로 위험구간 390m에 대하여 군비 5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선형개량사업을 추진 중 이다.

유기상 군수는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은 도로기능 향상과 교통사고 저감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모든 군민들에게 하루빨리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푸드필드와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층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번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열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호 | 750ml 1ea/12%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호 | 375ml 5ea/13% | GIFT SET 6호 | 500ml 람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7호 | 375ml 2ea/13%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